# '영화의 향기, 당신의 인생, 음악이 되다'

## 프레젠트 예술기획, 29일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축하 특별 음악공연 개최

프레젠트 예술기획(대표 한리안)은 오는 29일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축하하는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아트이슈프로젝트(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43)에서 진행된다.

'영화의 향기, 당신의 인생, 음악이 되다'(Fragrant Memory of Film Your life becomes music)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관람객들은 극을 이끌어가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영화음악의 역할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영화음악은 스토리의 감정선에 따라 영상미의 이면을 채우며 생동감의 기를 가지고 영화 전체에 예술적 입체감을 완성시키는 대중문화의 꽃으로서, 영화를 오랫동안 우리들의 기억에 남게 해준다. 뮤직비디오와는 다른,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여수버스킹축제(2015, 2017)에서 음악감독, 총감독을 맡았던 이계화 감독이 기획하였으며, Tango Jazz Project '라벤타나 La Ventana'의 리더 아코디언 정태호, 호서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최현우, 프랑스 파리 보비니 국립 음악원 드럼 전공 드러머 한동빈, 전주시립국악단 수석 단원 대금 이창선, SBS 신의 목소리 〈만약에 말야〉로 시청자의 심금을 울린 싱어 김진성, 프레젠트 대표이자 싱어 리안이 참여한다.

한리안 프레젠트 대표는 "멋진 뮤지션들과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의 추억을 연대하며, 코로나로 지치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공연은 선착순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기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프레젠트(063-286-8689/present@present-issue.com)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프레젠트 예술기획 특별공연 포스터.

#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개최

## 최명희문학관, 9월 13일까지 방문 · 우편 접수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 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초등학생 손글씨 주인공을 찾는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열여섯 번째인 이 공모전은 지난해 전국 219개 학교(전북 51개교)에서 1,251명의 학생이 응모,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글쓰기 공모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멈춘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와 의료진을 향한 감사의 글이 많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어린이 특유의 긍정적인 태도로 일상 속 재미를 찾은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올해 공모전 역시 자신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일기가 대상이며, 자신의 손글씨를 뽐내고 싶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9월 1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 전라북도교육감상과 상품(20만 원 상당) 등 총 113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선물한다. 수상한 작품은 손글씨블로그(https://blog.naver.com/jjhonbul)와 최명희문학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게재되며, 10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최명희문학관 마당에 전시된다.

최명희문학관 전선미 학예사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초등학생들이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글씨를 쓰면서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자신의 글씨에 새겨진 마음을 살피고, 평생 만년필 쓰기를 고집했던 소설가 최명희의 삶과 문학 열정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박물관에서 보고 듣는 문화유산' 인문학 강좌

##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전주박물관회, 27일~7월 6일까지 총 10회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과 (사)국립전주박물관회(회장 최무연)은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인 '2022 박물관대학-박물관에서 보고 듣는 문화유산'을 4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 박물관 대학' 강좌의 주제는 '박물관에서 보고 듣는 문화유산'이다. 이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1~4회차 강의는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된다.

오는 27일 정규영 조선대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는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60명을 당일 현장접수로 모집할 예정이다.

홍진근 관장은 "박물관대학이 도민에게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과 문화향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는 주말마다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거리의 풍각쟁이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다.

# 문화 힐링 '거리의 풍각쟁이 버스킹'

## 군산시, 시간여행마을 일원서 버스킹 · 서포터즈 댄스 공연

군산시는 주말마다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거리의 풍각쟁이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거리 공연은 지역 청년 버스커들과 군산시간여행축제 댄스 서포터즈들이 꾸미는 '봄에 떠나는 군산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노래와 춤으로 채워진다.

구체적 일정은 오는 9일, 10일, 16일, 17일까지 주말마다 초원사진관 야외무대와 경암철길마을 내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이 열리는 초원사진관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이며 시간여행마을에서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관광객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경암철길마을은 지난해 히트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관심이 많아진 달고나뽑기를 체험해볼 수 있고 7080시대의 레트로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군산의 관광 명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공동체가 일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문화적 정서 결핍을 해소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 남원시, 요천 수경음악분수 화려한 쇼 펼쳐진다

남원시는 남원 요천 고수부지를 활용해 설치한 요천 수경음악분수(이하 분수)를 6일 본격 개장했다.

지난 해 준공을 마친 분수는 시험운영을 마치고 최근 개장, 아름다운 남원 요천 야간경관과 어우러져 남원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특별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분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설치됐으며, 폭 42m규모로 수중펌프 34대를 이용해 최대 30m까지 상승될 수 있다.

특히 12종의 분수쇼와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워터스크린, 색색별로 화려한 조명쇼가 제공되면서 가족단위, 연인, 어린이 등 남녀노소 누구든지 남원을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저녁 7시, 8시 30분에 30분간(1일 2회)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음악분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서지호 관광시설상업소장은 "앞으로도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확충, 시민과 관광객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